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연구원 설립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 정부는 좋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동자 개인과 노동시장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근로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 왔다.¹⁾ 특히 정부는 근로환경청(Arbetsmiljöverket)을 두어 지속적으로 근로환경을 감독하면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근로환경에 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근로환경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트너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근로환경에 대한 학술연구와 더불어 미래 전망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는 세계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근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반면,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내놓을 연구기관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 지적이었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2018년 근로환경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적·실용적인 연구에 힘쓸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이 설립된 스웨덴 근로환경연구원(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을 소개하고 이 기관에서 맡게 될 주요 연구분야에 대해 다룬다.

1) En arbetsmiljöstrategi för det moderna arbetslivet 2016 – 2020(Regeringens skrivelse, 2015/16:80),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www.regeringen.se/contentassets/414e55ccaf03458fb6716bc7fedc24c9/en-arbetsmiljostrategi-for-det-moderna-arbetslivet-skr.-20151680>

■ 스웨덴 근로환경 연구기관의 역사와 근로환경청

스웨덴 정부는 1970~80년 동안 근로환경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며 해당 분야의 기초를 닦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래, 근로환경 연구는 점차 정부의 관심영역 밖으로 사라졌으며, 해당 분야 연구를 이끌던 국가노동생활연구원(Arbetslivsinstitutet)이 2007년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근로환경청 역시 감축된 예산으로 인해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및 지식 제공의 업무를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²⁾

근로환경청은 근로환경 감독, 정부정책 검토, 단체협약상에 나타나 있는 기준 확인, 근로환경 연구자료 리뷰 등을 통해 근로환경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 물리적 위험,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질환 등에 대한 통계자료도 함께 제공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파트너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근로환경 관련 연구에 있어 근로환경청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해왔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근로환경에의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구성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대한 지식 제공이 미비하다며 근로환경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 노동인력을 스웨덴 노동시장 내에 어떻게 잘 적응시킬 것인지, 그들을 위한 좋은 근로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및 지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근로환경청은 이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근로환경 관련 연구 및 지식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 근로환경청의 보고서⁴⁾에 따르면, 근로환경청은 주어진 업무의 과중(감시 및 통계 자료 제공) 등으로 인해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근로환경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70~90년대의 근로환경 연구는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직장 내 물리적 충격 혹은 상해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던 반면, 현재의 근로환경 연구는 노동자에게 미치는 미시적 영향(조직,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여성과 젊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2) Arbetsmiljöverket(2015), Swedish Work Environment Research 2017 - 2027: Input to the Government's Research Policy.

3) Ibid. pp.18-20.

4) Ibid. pp.12-21.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직업병을 앓게 되면서 새로운 근로환경에 대한 대안과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스웨덴 근로환경청은 새로운 근로환경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3년간 주어지는 재정지원을 6년까지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로환경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가 학계에 기여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 스웨덴 근로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이해관계자들(근로환경청, 정부, 노조, 사용자단체 등)과 세미나 등의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로환경연구원(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의 설립

근로환경연구원은 근로환경에 대한 지식(통계자료 및 연구)을 제공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해당 지식을 특정 직군 및 산업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근로환경연구원은 2018년 6월 스웨덴의 예블레(Gävle) 지역에 설립되었다. 예블레 대학교가 오랜 기간 동안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는 점과 예블레 지역이 다양한 직업군, 기술 직들이 모이는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해당 기관의 위치를 결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근로환경연구원의 초대 원장은 예블레 대학교에서 건강 및 노동생활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나데르 아마디(Nader Ahmadi) 사회학과 교수가 맡게 되었다. 연구원이 설립된 2018년에는 정부 예산 1,880만 크로나(한화 20억 원가량)가 투입되었으며 연구원의 설립이 온전히 마무리될 2020년에는 3,500만 크로나(한화 30억 원가량)를 할당받을 예정이다.⁵⁾ 한편 근로환경연구원의 원장은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연

5)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8), "Nader Ahmadi new Director-General of the Swedish Agency for Work Environment Expertise (SAWEE),"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18/06/nader-ahmadi-new-director-general-of-the-agency-for-work-environment-awareness/>

구 및 지식을 확보하고 정책 입안 등의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환경연구원이 우선적으로 밝힌 목표는 다음과 같다.⁶⁾

- ① 근로환경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식 확산에 기여: 근로환경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 학계뿐 아니라 스웨덴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② 근로환경정책의 평가 및 분석: 근로환경정책은 병가 및 직업병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정부정책의 방향에 기여한다.
- ③ 근로환경에 대한 감시 및 관찰: 근로환경청과 함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 때 감시와 관찰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 ④ 직업병 관리 및 치료 서비스에 도움: 근로환경은 직업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연구원은 직업병의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성공적인 직업병 치료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조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 ⑤ 근로환경 관련 국제적 기준 및 지식에 기여: 근로환경 관련 국제적 기준에 관심을 두고 해당 기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웨덴 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스웨덴의 근로환경 지식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근로환경청 보고서⁷⁾에서 지적했듯,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산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원에서 다룬 지식 및 연구를 사회적 파트너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근로환경청을 비롯하여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과제를 장기적으로 진행해온 연구기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근로환경연구원은 우선적으로 현재까지의 근로환경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6) 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2019), "Vårt arbete,"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s://www.mynak.se/om-oss/vart-arbete/>

7) Arbetsmiljöverket(2015), Swedish Work Environment Research 2017-2027: Input to the Government's Research Policy.

■ 근로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⁸⁾

미래의 노동생활(Framtidens arbetsliv)

근로환경연구원이 스웨덴 정부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과제는 기후변화, 기술변화, 인력확보 경쟁, 유연화된 노동이 가져올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적으로 근로환경연구원은 국내외 최신의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건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과제를 이끌고 있는 헬레나 얀케(Helena Jahncke) 연구원 및 해당 프로젝트 담당 연구진들은 연구 진행 중에 근로환경 변화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제는 2020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조직요인에 대한 연구(Organisatoriska friskfaktorer)

기업 내 조직구조 및 조직 내 리더십이 노동자의 건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스웨덴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근로환경 문제 중 하나는 조직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 및 근골격계통의 직업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조직구조와 특성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조직요인에 대한 연구와 감시를 실시해온 근로환경청, 사회보장청과 함께 진행하며 2021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Friska och välmående arbetsplatser)

연구원은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와

8) Myndigheten för arbetsmiljökunskap(2019), "projekt," Retrieved on Jan 22nd 2019, <https://www.mynak.se/projekt/>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의 목적은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의 요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 및 지원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직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 연구과제는 2020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직업병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평가(Företagshälsovårdens kompetensförsörjning)

직업병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현재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평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뿐 아니라 고용주, 노동자 개인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의 운영이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연구한다. 이 연구는 2019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직업병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기(Företagshälsovårdens riktlinjer för evidensbaserad praktik)

직업병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연구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전달한 후 이를 따르게 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 역시 2019년 3월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최근 설립한 근로환경연구원과 해당 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될 주요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웨덴 정부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내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와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연구기관은 2007년 이후 사라져 근로환경 감시를 주로 담당하던 근로환경청이 그 역할까지 담당해왔다. 하지만 그 이후 근로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정신질환 등이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파트너들은 정부에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스웨덴 정부는 근로환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을 만들게 되었다. 이 연구기관은 현재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정책과 기관들에 대한 평가 및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다가올 미래의 근로환경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기존의 근로환경청이 근로환경과 관련한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만을 담당했다면, 근로환경연구원은 이에 더해 근로환경 변화에 맞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KLI**